

「부산-후쿠오카 포럼」 출범 -한일 지역간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 기대-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부산-후쿠오카 포럼' (공동회장: 장성만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김종렬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시하라 스스무 JR규슈 사장)이 9월 9일 창립총회 및 제1차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지방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의 재계, 언론계, 학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 지도자 22명의 참가 하에 두 지역의 상생과 번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 이어 '한일 해협권: 교류를 넘어 지역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가진 후, 전체 회원이 서명한 '부산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선언문'은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행정적, 인프라적 지원을 토대로 교류에서 협력으로, 협력에서 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두 지역의 비전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호보완적 정책을 공유하고, 두 지역 간 협력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급기로 하는 등에도 합의했다. 포럼은 이 같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포럼에서 논의된 △부산-후쿠오카 전략회의 개최 △부산-후쿠오카 국제교류재단 설립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해 포럼 산하에 공동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제자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양 지역 공동관심사인 지역협력력을 통한 한일경제통합 전략 및 차세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포럼의 운영과정에서 이들 현안을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일해협권의 중추도시로서 '세계도시 부산'과 '아시아 거점도시 후쿠오카'를 각각 표방하고 있는 두 지역 간 협력체로 구성되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새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만 '부산-후쿠오카 포럼' 공동회장 인터뷰

1) 부산-후쿠오카 포럼창립의 의의는?

지금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또 일본이다. 특히 부산과 후쿠오카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도시보다 양국 간 접촉이 많은 곳이다. 이런 외부적 환경 속에서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립되었다.

첫째, 두 지역의 주요 기관장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임으로서 양국의 긴장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부산과 후쿠오카가 협력하여 활기찬 경제 공동체를 먼저 구축할 수 있다면 아마 동아시아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양도시를 이끌어갈 우수한 차세대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역대 교육기관들이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제휴를 함으로서 최고의 국제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국제교류의 시대가 아니다. 치열한 국내외 도시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서의 국제교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첫 시험인 것이다.

2) 앞으로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1년에 한번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며 개최될 것이다. 우선 올해는 창립해이니 양지역간의 비전 공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동 비전이 구축되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 지역의 차세대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장도 만들 계획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회원 명단)

◇부산 측

장성만(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김종렬(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박용길(KNN 사장), 김인세(부산대학교 총장), 신정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훈(한진중공업 부회장), 이창호(부산은행 회장), 추준석(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임권(해운수산 회장), 강남주(조선통신사 기념사업회 위원장), 이종균(부산한일친선협회 회장)

◇후쿠오카 측

이시하라 스스무(JR규슈 사장), 다다 아키시게(서일본신문 사장), 데라사키 가즈오(TNC 서일본방송 사장), 가자이마 지사토 (규슈대학교 총장), 구보타 이사오(서일본시티은행 회장), 아마모토 마사히데(아마바 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다지리 히데모토(후쿠오카상공회의소 회장), 이마무라 아키오(규슈경제조사협회 이사장), 요시모토 도시오(스미토모 상사규슈) 사장, 히사다 고이치(규슈전력 상무), 다케시마 야스히로 (일본의사회 부회장)

◇사무국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부산-후쿠오카 FORUM 세미나 - 주제발표 요약

부산-후쿠오카 포럼 1차 회의에서는 두 도시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 전문가에 의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 발표문 요약이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산지역은 우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됨으로써 역대 우수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또 기업의 역외유출 또한 심화되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우수 교육기관과 좋은 일자리, 문화의 화려함과 차별성, 집 중투자를 통한 선진국 수준 인프라 등의 중앙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체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파이의 증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경제 파이는 인재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협력체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 경쟁력을 고조시켜 자연스레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후쿠오카 소재 각급 학교, 특히 대학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전문성, 연구역량의 강화, 교육 질의 강화 등을 통해 '부후인'을 양성해야 한다. 양 지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부산-후쿠오카 전략회의(가칭) 정례화 △부산-후쿠오카 국제교류재단(가칭) 설립 △프로야구의 상대구장 개최와 생중계 방송 등이 제안될 수 있다.



후카가와 히로시(규슈대학 경제학연구원 교수)

한일해협에 관련된 기존 회의는 많은 지역이나 도시로 구성되는 관 주도였다. 그러나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두 개의 도시간의 민간 주도형 포럼으로 획기적인 것이다. 많은 주제들에 의해 구성되는 기존의 회의에 비해 가동적으로 제안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지역제휴는 자치단체 간 교류나 문화·학생 교류 중심이었다. 이들 교류는 해가 갈수록 증가 또는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업 간 제휴는 드물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교류가 과제다. 비즈니스 교류는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쿠오카와 부산 간에 무역, 서비스, 소프트 개발 등의 분야에서 보다 자유로운 교류를 진행시키기 위해 한일해협경제권, 곧 지역 FTA 또는 지역 제휴의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다. 북부 규슈와 한국 남해권으로 이루어진 한일해협경제권은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제휴에 의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에서는 지역에 한정해 규제완화,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FTA구상과 관련해 국제판 공동특구 또는 지역 제휴특구를 잠정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부산과 후쿠오카는 지리적 근접성, 제도적 유사성, 산업구조에서의 결합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일 협력 및 동북아 경제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해협권 월경 경제 협력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수면들 사이에 둔 월경 경제권 형성의 개념을 의미한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수도권 지향 발전 정책의 한계에도 바다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현재로써 서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중국지역으로의 공동 진출 필요성 등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 지역사회가 교역→교류→협력→경제적 통합→지역통합의 단계별 수순을 밟는다고 할 때 협력과 경제적 통합의 단계를 선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의 국제협력 부서에 전담기능을 설치하고 해협 경제권 추진협회를 설립하는 등의 추진기구(제1단계)를 구성한 뒤 이어 각 시에서 기금을 출연, 이를 관리하는 해협경제권 기금 사무국을 설치(제2 단계)하는 등의 단계별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 또 양 지역을 공동생활권의 개념으로 접근, 인적교류 및 물적 교류, 정보교류, 정부 간 협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준 수학여행 코스 개발과 주선, 홈스테이 방문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양 지역의 시설을 이용,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교육과 취업자·인턴쉽 그룹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수 있다.



마츠바라 다카토시(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지난해 3월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돼 가고 있던 시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24만4천여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7.4%나 증가했다. 또 한국의 드라마나 연예인, 영화, 요리 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한류 붐과 양국 간 문화교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후쿠오카는 지리적 근접성 속에 상호 제휴를 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다. 한국의 BK21과 일본의 COE(핵심적 연구 거점)프로그램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와 후쿠오카시의 아시아 포커스·후쿠오카영화제는 바다를 건너 서로 경합하면서 영화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확대하는 대표적 영화제이다. 이들을 통해 양 도시간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영화제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과 후쿠오카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계·각종·각종 업종 간 교류를 포함한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생 등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일 해협권 여름 스쿨'과 '부산-후쿠오카간의 선박스쿨' 개설 등이 강구될 수 있다.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일 해협권 대학 컨소시엄의 창설과 한일 해협권 대학간 캠퍼스 공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기문학」이란 무엇인가



안정숙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일본어학과 교수

일본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서사시나 장편 소설류의 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기나 기행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작가의 활약이 눈에 띄는 분야가 일기문학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고전문학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헤이안시대의 여류일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문학에 있어「일기」라는 말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일기문학」이라는 호칭은 근대의 연구자에 의한 조어로서, 특히 전후에 일반화 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한때 이들 작품은 형태와 성격이 특이하여 근현대의 연구자에 따라서는「일기문학」외에도「일기모노가타리(日記物語)」,「자조문학(自照文學)」,「궁녀일기(女房日記)」등 다양하게 호칭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일기의 개념이 확대되어, 현재의 일기문학이라는 용어가 확립되었다. 여기서 일기문학으로 취급되는 작품은『토사일기(土佐日記)』,『카게로오일기(蜻蛉日記)』,『이즈미시키후일기(和泉式部日記)』,『무라사키시키후일기(紫式部日記)』,『사라시나일기(更級日記)』,『조오징아자리노하하일기(成尋阿闍梨母日記)』,『사누키노스케일기(讃岐典侍日記)』등 헤이안(平安) 시대의 여류일기를 말한다.

창작적 의도로 쓰여진 일기문학의 최초의 작품은『토사일기』이며, 여류일기의 효시는『카게로오일기』이다.『토사일기』는 키노츠라유키(紀貫之)가 토사의 지방관의 임무를 마치고 귀경하는 55일간에 걸친 여행일기인데, 이 작품의 서두에 작자인 츠라유키가 여성으로 타락되어,「남자도 쓴다고 듣고 있는 일기」를「여성인 나도 한번 써 볼까 하여」 시도한다는 작품의 의도를 밝히므로 종래의 남성이 쓰는 공적인 한문체 일기에서 여성에 손에 의한 사적인「카나일기」를 창시한 것이다.

이후 일기문학의 시발이 되어 약 40년 후인 972년경에 카네이에의 구헌에서 그와의 21년간의 결혼생활을 회상한『카게로오일기』가 탄생하였다. 일기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 작품의 서문에서 작자는 작품의 의도를 기술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1700년경의 루소의『고백론』의 서문과 대단히 유사하다. 지면 상, 두 작품의 서문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공통점은, 이 작품의 집필이 전례가 없는 시도라는 것과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쓴 작품이 누군가에게 읽혀질 것을 시사한 점이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인 거리와 8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로 볼 때 양 작품의 유사성은 대단히 흥미롭다. 무려 800년이나 앞선 고대일본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집요하리만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자세하게 그려, 자신의 충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써 보려는 시도는 세계문학사상 가장 빠르고 놀랄만한 업적이며,

세계문학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특이하다.

이 작품을 시발로 성립된 여류일기는 작자의 고유한 정신에 의해 각각의 이성을 발휘하여 자립되어 있다. 작품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쓴다는 행위에 의해 표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기문학 작가에게 있어 이러한 내적 충동은 가장 절실하고도 각별한 것이며, 그것은 와카와 같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틀에 의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또한 소설처럼 가공의 무대를 만들어 자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순수하고 독자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내적 욕구가 작품의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형성된 여류일기는 자기 확인의 문학, 혹은 인생인식의 문학이라 불린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일기문학의 기반과 원동력이 되는 정서는,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 중 충만, 환희, 쾌락 등 밝고 명량한 양기의 정서보다는 비애, 애상, 비탄 등이 어울리고, 여류일기의 특징은 환희보다는 비애가, 희열보다는 애상이 문학형상에 있어 일반적 현상이다. 만약,『카게로오일기』의 작자 미치츠나노하하가 일생 추구해 왔던 남편 카네이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정처가 되어 충족한 결혼생활을 보내었다고 한다면,『이즈미시키후일기』의 이즈미시키후가 그토록 사랑한 소치노미야를 잃지 않았더라면,『무라사키시키후일기』의 무라사키시키후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지 않고 그녀 특유의 염세적인 인생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면,『사라시나일기』의 타카스에노무스메가 남편 사후의 슬회에서 과거에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비친 희열과 비애의 양면의 거울을 보여준 꿈의 계시가 지금은 비애만이 현실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만약 희열의 장면만이 현실로 되었다면,『조오징아자리노하하일기』의 조오징아자리노하하가 그의 아들과의 이별의 고통이 없었다면,『사누키노스케일기』의 나가코가 일생 헌신적으로 섬겨온 호리카와천황의 붕어가 없었다면, 그녀들은 결코 이들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며, 여류일기문학작자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하면, 여류일기는 여성애사, 바로 그것이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여성은 약자이며, 끊임없이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남성중심의 헤이안 시대에 있어 수령층의 여성들은 그 비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숙명이었으며, 그러한 비애 속에서 자신만의 억제하지 못할 강렬한 표출욕구가 여류일기문학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여류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들은 해소할 수 없는 인생의 비애를 가슴깊이 인식하여 자기 확인 지점에 도달 하지만, 헤이안이라는 사회·신분적 제약아래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작품에는 확인된 자기를 새로운 전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려는 적극성과 자기 확립의 의지를 작품상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문학사적 여류일기는 미래를 향한 자기의지 보다는 오히려 한 많은 자기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비애에 젖은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여 그 애상을 절절히 토로하고 표출하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그 행위를 통해 자기생애를 확인하고 나의 인생은 이러했노라고 인식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제8회 동경대학 핫토리 타미오 교수 강연

「한국은 어떻게 성장하였나」



9월11일(월) 일본연구센터에서는 핫토리 타미오(服部民夫)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교수를 초청해 「한국은 어떻게 성장 하였나」라는 테마로 강연회를 가졌다.

핫토리 교수는 우선 한국의 투자율, 대일·대중 무역액 및 무역품목, 90년대 후반부터의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등에 주목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궤

적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각국의 공업화 패턴에 대해 “구미선진국에서는 기술이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조립』과『가공』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공』으로 중심을 옮긴 것에 비해, 후발공업국은 선진국이 『가공』한 상품을 『조립』하는 것에서 공업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같은 후발국인 일본과 한국의 공업과 관련해서는 “기술변화가 충분한 시기에 공업화를 진행시킨 일본은 시간과 경험을 거듭할 수 있어, 선진국이상으로 가공형의 공업화패턴을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공업화가 진행되던 시기는 자동화기계가 개발된 시기와 겹

쳐, 스킵·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에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숙련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 기술진보와 제품의 사이클 전환의 고속화가 첨가되어, 한국은 『조립』에 비중을 둔 채로 기술의 첨단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공업화 패턴『조립형 공업화』를 만들었다”고 한국의 공업화 패턴의 특수성을 분석했다. 또 한, 중국 및 대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줬 “중국·대만은 일단 가공형으로 전환해가면서도 그 후 급속히 한국형 공업화 패턴을 따라가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해 한국형 공업화 패턴이 중국·대만에서도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토론에서는 각 공업화 패턴의 관계성과 발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핫토리 교수는 “『조립』과『가공』은 분업체제로 파악하여 개개의 독자적인 패턴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일본의 공업화 패턴은 3K(힘든 일, 지저분한 일, 위험한 일)를 동반하는 이상 이른바『2007년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력의 계승이 잘 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의 공업화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스마트한 직장이며, 저 출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패턴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제9회 리츠메이칸대학 서승 교수 강연

「야스쿠니신사 문제」



일본연구센터 월례강연회의 일환으로서 9월 14일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법학부 교수이며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 연구센터 센터장인 서승 교수의 강연회가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및 대학원생의 참가 하에 열렸다.

강연자인 서승 교수는 재일교포 2세로서 1945년 일본 교토에서 출생해 1968

년 동경교육대학을 졸업했다. 다음해인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입학했으며, 1971년에는 ‘재일동포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1990년에 석방될 때까지 19년간 비전향 정치범으로서 옥중생활을 하였다. 출옥 후,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코리아연구센터를 설립해 한일관계 연구 및 일본과 한반도간의 교량 역할을 행하는 등 한일관계의 진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월례강연회의 주제는 최근 한일관계의 최대현안인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문제였다. 주요내용은 야스쿠니신사가 일본의 천황제에서 갖

는 의미, 참배 강행의 정치적 의미, 그에 대한 아시아 국민들의 반대운동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후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신도의 본산으로부터 독립종교 법인으로 바뀌었으나,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군국주의사관을 선전하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전전(戰前)과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어 죽은 약 5만 명의 한국·대만인이 합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들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일본 측의 비판은 옳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참배는 일본사회의 보수화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하며, 야스쿠니반대운동이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8월15일을 전후 해 약 1주일 동안 한국 및 대만의 시민단체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야스쿠니문제는 국민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달성이라는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입각해 운동이 이루어 질 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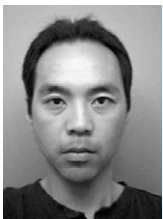
츠카다 호타카(종교·사상분과)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 박사과정 1년
hotaka714@yahoo.co.jp

근대화와 사회변동을 배경으로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교조가 통솔해 전개를 이룬 교단. 치료 등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위타를 계속하는 신자들. 이것이 일반적인 신종교 운동의 이미지 일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교조가 고령화되어 죽음을 맞고, 운동 중 태어나고 자란 신자가 늘면서 상황은 변한다. 누가 교조의 뒤를 잇는가. 왜 세습이 많은가. 왜 부모가 선택한 신앙을 자신도 믿고 있는가. 이러한 교조의 「후계자」나 「2세 신자」라는 「계승」을 둘러싼 문제가 나의 관심사이다. 전자는 「카리스마의 일상화」 후자는 「가치의 세대 간 전달.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보편적 문제와 각각 연결된다. 동시에 이에 (家)제도의 해체, 가족의 개인화, 규범의식의 후퇴, 글로벌화라고 하는 포스트모던 상황과 크게 관련 된 현대의 과제이다.

일본의 신종교연구는 종교사회학연구회(1975-90, 宗社研)의 활동에 의해 융성해져 「신종교 사전」(1990)에 의해 성과의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는(그 후에도 포함)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연구 또한 종교사회연구세대를 계승하는 것이 된다. 향후 착실한 조사에 근거한 실증적 성과를 제출함으로써, 신종교 운동을 통해 현대사회의 특성을 날카롭게 역 조사해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케구치 도모유키(교육·언어분과)

간사이학원대 대학원
언어커뮤니케이션문화 박사과정 3년
t-take@kwansei.ac.jp

언어는 다양한 기능과 정서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언어의 이해를 촉진하고, 운용력의 신장 보증을 언어권이라 한다. 기본적인 언어권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적 조건을 획득하는 권리이다. 또한 자신의 자아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언어권이라 한다.

일본에 살고있는 에스닉 집단 중 가장 다수파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조선 국적의 사람들이다. 상기의 언어권을 한국·조선국적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K도미넌트·코리언(한국어가 능함)의 언어권보증(모국어 지원이나 일본어교육)은 생존권으로서 그 정도가 높고, J도미넌트·코리언(일본어가 능함, 2세 이후의 사람)의 계승어 교육은 문화적인 요소가 많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J도미넌트·코리언의 한국어 사용의 동기·태도와 학습관계, K도미넌트·코리언의 일본어 사용·동기나 태도, 학습 관계를 고찰하였다.

종래 연구에서는 동기와 언어태도가 구분되지 않고, 인자분석을 하는 것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구분함으로써 언어태도가 동기의 기반이 되는 것을 증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거듭 [태도]→[동기]→[행동]→[4기능인지]라고 하는 도식의 가설적 패스도를 가정하여 검증했다. 패스해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의 고찰을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양라운(사회분과)

전남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2년
treenity@hanmail.net

본 연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와 사회질서 유지 및 체제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력 사이의 딜레마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제3공화국시기 출판물 통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무력으로 정권을 획득한 제3공화국은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재건의 목표를 위해, 근대화를 위한 발전주의 전략과 권위주의적 전략을 행한다. 국가권력과 정치사상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측면에 주목하여, 국가권력의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획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지배전략은 억압적·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오히려 지원하고 포섭하여 지배전략에 대한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출판물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배전략이 한편으로는 금지와 배제를 통해 국민의 사고와 의식을 획일적이고 순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과 성장정책을 통해 국가권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지지 기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가권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그것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검열과 금지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날의 출판문화를 국가권력과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지연(민속·인류분과)

고려대 대학원
민속연구과 석사과정 3년
cjy12@hanmail.net

필자는 불교문화 중에서 민속신앙적 요소를 중심으로 불교와 민속신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회심곡을 중심으로 불가(佛歌)와 무가(巫歌)에서의 의미분석과 영향관계를 테마로 하고 있다.

회심곡은 불가나 무가 모두 망자의 천도 의식 때 불린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신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은 종교적 의례의 공통점인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사를 보면 불가는 대부분이 국한문혼용체로 염불권장 등의 후렴으로 설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무가는 국문체가 많고 후렴에 염불권장의 내용보다는 망자천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가는 『석문의범(1935)』 이후에 회심곡이 일정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무가는 『조선신가유편(1930)』 이후 지금도 다양한 무가집이 발행되고 있어 다양한 무가전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불가와 무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불교종단의 염불, 화청 권장 시책 이후 걸림패의 대중보시나 걸량승의 속출이 불가와 무가의 회심곡의 이분형성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불가와 무가 모두 1930년대 이후에 정리가 되었다는 점과 후렴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는 서로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일 6개 대학 공동 세미나 개최

주제 : 「한일 양국의 『인간관계』」

지난 9월21일(목) 교내 소향아트홀에서 '한·일 양국의 인간관계' 라는 주제로 한 일6개대학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일본 연구센터소장 장제국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양국 대학생 약280명(한국측: 동서대, 부산대, 부산외대. 일본측: 게이오대, 다이쇼대, 리츠메이칸대)과 인솔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각 대학 별로 20분씩의 주제발표, 이에 대한 개별질의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학별 주제발표를 보면 한국측은「효도 마케팅을 통해 생각해보는 현대 한국인의 효」등과 같이 본질을 따지는 것에 반해 일본 측은「대학 서클활동에서 보는 일본인의 인간관계」등과 같이 구체적 사례를 다루는 내용이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 발표에 대한 객석의 반응은 대단히 적극적이었으며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에 할애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인 각 대학 인솔교수들의 총평에서 게이오 대학의 카시오 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발표였으며, 한일 양국이 상호 배울 점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지난해에 만든 6개 대학 교류블로그를 통하여 이번 토론을 더욱 활성화시켜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리츠메이칸대학 고마츠바라 키요코 (문학부 4)씨는 “한일 양국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더욱 많은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세미나 이후 일본 학생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동서 대학생들의 집에서 개별 홈스테이를 하고, 함께 부산시내 관광을 하면서 우정을 다졌다.

제2회 한·일 해협권 대학생 서밋 개최

주제 : 「대중음악을 통해서 본 대중문화」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와 큐슈대 한국연구센터의 주관으로 '한·일 학생이 보는 대중문화-대중음악 공동조사를 통한 제언'이라는 주제하에 9월 7일(목) 일본연구센터에서 제2회 한·일 해협권 대학생 서밋이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의 5개 대학 5명의 학생대표와 일본 측에서 큐슈대, 후쿠오카대, 후쿠오카여원대의 3개 대학 5명의 학생 대표, 총 10명의 한일 학생 대표가 참가하였다. 양국의 학생들은 서밋에 앞서 3일 동안 부산시내의 노래방과 음반가게 등에서 일본의 음악·음반의 보급 실태 조사 및 한국인들의 일본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서밋은 그간의 조별 조사보고,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및 토론, 한·일 학생 제안문작성, 제안문 채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양국의 지도교수도 참가하여 매



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장제국 일본연구센터소장은 서밋 개최사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젊은이들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일 대학생 서밋’ 같은 논의의 장은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경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학생 대표들은 ‘부산과 후쿠오카의 지역성을 살려 부산~후

쿠오카 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양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9개 항의 제언을 채택하였으며 이들 제언은 9일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공식 제출되었다.

동서일본학연구회 발족 및 「제1회 한·일연구회 합동세미나」개최



동서대 대학원 일본지역연구과 재학생과 졸업생 연구자로 구성된「동서일본학연구회」가 지난 7월 8일(토) 발족되었다. 본 연구회는 학술지 발간,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 강화,

한·일 양국의 차세대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7년 전통을 이어온 교토·오사카지역 명문대학의 젊은 연구자로 구성된「일본사상사연구회」와 향후 활발한 학술교류를 가질 것을 협의하였으며, 발족을 기념하여 8월 25일(금), 본 대학 일본연구센터 세미나실에서「제1회 한·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은 석(동서대)「Gender Free 역류」, 손 영주(동서대)「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일본측은 이와네 타카시(리츠메이칸대)「神代文字」의 구상과 그 논리, 우츠노미야 메구미(오사카대)「식민지제국 일본과 여자 고등교육」등의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을 행하였다.

국제지역학과 + 나가사키국제대학 국제교류세미나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11박 12일 동안 나가사키국제대학(長崎国際大学)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 하에 주최하는 국제교류세미나 “표창 쓰레기로부터 배우는 한일학술교류”

(漂着ゴミに学ぶ日韓学術交流)에 본 대학 국제관계학부가 참여대학으로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본 국제교류세미나 개최에 있어 나가사키 국제대학이 설정한 목적은 표창쓰레기 문제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차원의 문제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자각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동서대학교는 상기의 목표에 일본어습득 및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한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추가했었다. 국제교류 세미나는 환경전문가에 의한 강의, 현지 방문을 통한 환경 조사, 환경비즈니스 사업체 방문, 학생들의 그룹별 토의,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서대학교와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학생교환은 물론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한 학술 관계를 확대·증진시킬 것에 합의했다.

추천 도서

『아름다운 나라에』 (美しい国へ)

安倍 晋三 著 文芸春秋 新書, 2006년



일본의 아베신조 수상이 지난 9월 26일 제90대 수상에 취임하기 2달 전인 7월에 집필·출판한 책이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격렬한 찬부양론(贊否兩論)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또 한국에서는 일본연구자를 중심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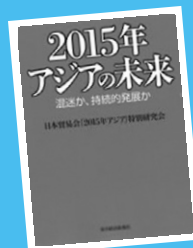
아베 수상은 서론에서 자신을 ‘투쟁하는 정치가’라고 규정하면서, ‘아름다운 일본(美しい国)’을 만들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중국, 한국)과의 관계 회복,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국내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재생, 연금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自信)과 자긍심(誇り)을 가지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보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보수 강경론자로 알려진 옆 나라 일본의 새 수상인 아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읽어 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 신 정화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15년 아시아의 미래』 (2015年アジアの未来)

日本貿易会「2015年アジア」特別研究会出版 著, 東洋経済新報社, 2006년



일본이 세계시장 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업형태 중에 ‘상사(商社・商事)’란 것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8대 상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무역회’ 회원 중에 ‘2015년 아시아 특별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약 1년간의 토의와 연구 끝에 그 성과를 공동으로 편저하는 책이다.

일본의 8대 상사 중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의 비즈니스전략연구소장인 마츠무라시게아(松村滋弥)씨를 중심으로 6명의 상사맨들이 다년간 상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아시아의 미래상을 다양한 위험요인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 해결 방안을 일본의 입장과 세계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아시아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가, 투자가 등 상사와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지역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전문가, 상사의 역할이나 그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 이 미영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연구원 동정 (8월~10월)

【센터소장 장 제국 교수】

- 미주지역 산학협정식 참석 (8/7, 미국 로스엔젤레스)
- 동서대 직원연수회 특강 (8/18)
- 동서대 신입교원 연수회 특강 (8/24)
- 한일경상학회 심포지움 토크참석 (8/25, 부산)
- 제14차 한일포럼 참석 (8/29-31, 일본 아와지시)
- 중국 장인시 방문 (9/4-5)
- 부산-후쿠오카 포럼 발족식 및 제1회 포럼 개최 (9/9-10, 부산)
-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9/14)
- 부산일본연구포럼 운영위원회 주재 (9/18)
- 일본국제정치학회 50주년 기념연구대회에서 논문발표 (10/13-15, 일본 키사라즈시)
- 중국 무한시 중남재경정법대학 방문 (10/19-24)
- 세계한상대회 차세대 CEO포럼에서 주제발표 (10/31, 부산)

【센터부소장 이 원범 교수】

- 동서대-리츠메이칸대 공동집중강의 실시 (7/30-8/5, 일본 교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로젝트「외국에서의 인문학의 학제 간 연구·교육 및 인문진흥관련법 사례조사」실시 (8/1-10/31, 일본)
- 부산-후쿠오카 한일대학생 서미트 지도 (9/6-8, 부산)
- 한일 6대학 공동세미나 지도 (9/20-23, 부산)
- 리츠메이칸 문학부교수회 옴져버 참가 (9/26, 일본)
- 일본 종교와 사회연구회 초청강연 (10/14, 일본)

【센터 연구원】

류 성경 교수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특별세미나 통역 (8/18, 삼성화재)
- 제29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출제위원 (8/24~27, 중앙인재개발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이해 입문과정” 강의 (9/28)
- 실천경제경영연구학회 제2회 한중일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고령화정책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0/21, 동의대학교)
- 일본보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발표
「한국의 민영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방안」 (10/28, 일본 중앙대학교)

신 정화 교수

- KIN(재외동포연대)강연: “한국과 북한의 대일동포정책” (7/20)
- G-SEC(학술세미나 논문 발표) “인간의 안전보장-일본의 대북정책” (7/22,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 나가사키국제대학과 동서대학교 교류 국제세미나
「漂着ゴミに学ぶ日韓学術交流-ワークショップからエコソリューション-」
국제관계학부 3학년 8명 인솔 하 참가 (7/31~8/11, 일본 나가사키)
- 현대일본연구회 월례연구회 논문 발표 “고이즈미 정권과 아베정권의 대북 정책 - 평가와 전망 -” 발표 (9/29, 현대일본연구회 사무실)

엄 필교 교수

- 「현대일본어연구회 제15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근세후기 에도어에서 메이지 관동어에 이르는「まい」용법”
발표 (8/28-8/30, 일본사이타마현립 니엑스 여성회관)

이 미영 교수

- 「유통기업 전략론」 출판 (두남출판사, 2006)
- 일본 향만 경제학회 초청 주제발표 (8/23~26, 일본 관동학원대학)
- 건설교통부 주관 종합 물류 기업 인증심사 (9/22~23, 한국교통연구원)

이 선복 교수

- 일본회계연구학회 논문발표「한일 회계기준의 제정동향과 차이 발생원인 분석」 (9/7, 일본 센슈대학)
- 동아시아일본학회 논문발표「일본어를 통한 기독교학자들의 사례와 의의 - 부산 D대학의 경험과 설문반응을 중심으로」 (10/21, 광주 조선대학교)

이 진호 교수

- 한일대학생디자인포스터교류전 학생인솔출장 (8/3~7, 일본 나가오카조형대학)
- 「EDIT Design」출판 (도서출판 포커스, 2006)
- 일본학술진흥재단방문연구협의의 출장 (10/1~7)

정 수원 교수

- 한일경상학회, 제21회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일본 소규모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8/26, 동아대)

주요일정 (11월~12월)

- 11/15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호」 투고 논문 심사결과 통지
- 11/23 일본연구센터 특별월례연구회
- 11월하순 조사이 국제대학과의 공동세미나
- 12/30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호」 논문 수정 원고 마감

방문자 (8월~10월)

- 8/16 코지마 칸지 (나고야학원대학 조교수)
- 8/22 테루야 유키오 (카나가와대학 교수)
- 9/6 마츠바라 타카토시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 9/11 핫토리 타미오 (도쿄대학 교수)
- 9/14 서 승 (리츠메이칸 코리아연구센터 소장)
- 10/12 아와타구치 카즈히사 (스미토모재단기획부 조성담당부장)
- 10/20 이와타 카즈아키 (휴먼미디어재단 개발부장)
조 연 (휴먼미디어재단 개발부 주임 주간 연구원)
- 10/26 서승원 (관동학원대학 교수)

신착도서 (8월~10월)

- 9/6 마츠바라 타카토시 교수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石川捷治, 「2005년도국제 워크숍 조성 기업성과보고서」,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2006. 외 5권
- 9/9 카츠라지마 노부히로 교수 (리츠메이칸대학)
桂島信宏,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
東アジア思想文化研究会, 2006. 외 2권
- 9/20 후카가와 히로시 교수 (큐슈대학)
深川博史, 「한국경제연구제6권」, 九州大学, 2006.
- 10/11 오카모토 아키라 교수 (히로시마대학)
岡本明, 「문화교류사 비교 프로젝트 연구센터 보고서Ⅲ」,
広島大学文化交流比較プロジェクト研究センター, 2006.